

기고



서 윤 정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깨끗한 정치후원금 희망 대한민국 2020!

대통령 선거에서 66.8%라는 120년 미 역사 최고 투표율로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끝이 났다.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다르기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크게 달라진다. 이에 우리까지 덩달아 긴장 속의 한 주를 보냈다. 우리나라의 다음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선거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2022년 3월 9일이 된다. 남은 기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리더를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다. 한편, 중앙선거위는 정치자금 조달의 가장 큰 병폐요인이었던 법인·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개인이 제공하는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등 후원금 기부 편의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추진해왔다. 2005년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2008년 비씨카드, KB국민카드, 2009년 외환카드, 2010년 롯데카드에 이어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사가 참여함으로써 대부분

의 카드사 회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후원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별다른 용도를 알지 못해 무심코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기부금액의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총 9억 5천만원의 기탁금을 기탁받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금년 1월에 주요 정당에 배분·지급하였다. 이는 정치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선관위의 숨은 노력이 결합되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공무원 등을 포함한 일반 개인이 선관위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중앙선거위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기부할 수 있다. 중앙선거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다수 후원을 활성화하고 조성방

법을 다변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깨끗한 정치후원 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깨끗한 정치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탄탄한 경제를 가지고 있어도 부패 정치문화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은 국가의 예도 있고 깨끗한 정치문화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부흥을 이룩한 국가의 예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국민 한사람이 기탁한 정치자금은 정치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하고 희망찬 정치를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fire.

Advertisement for Honam Newspaper (호남신문)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파지 수집 노인들에 대한 배려 운전 필요하다

출퇴근길 새벽시간이나 밤늦은 시간대에 리어커를 끌고 다니며 파지를 줌을 노인분들을 종종 보곤 한다. 이분들은 자동차가 썩씩 달리는 도로에서 리어커를 끌고 가다가 하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줌을 노인분들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운전 중 커브길이나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볼썽 리어커와 마주치게 되는 경우다. 별 생각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일순간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도 종종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여건에서 파지를 줌을 노인분들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협에 노

출되어 있어 운전자는 물론 파지를 줌을 노인분들 모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염려가 기우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최근 모 지역에서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갓길을 따라 이동중이던 파지 수집 손수레를 충돌하여 노인분이 운명을 달리하는 교통사고도 발생한바 있어 먼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될 듯 싶다. 더욱이 이들 파지를 줌을 노인분들은 고령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상당수여서 보행자와 장애물이 많은 인도로 리어커를 끌고가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수레를 끌기 쉬운 도로여건을 갖춘 자동차가

다니는 아스팔트로 이동하는 분들도 상당해 자칫 인명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노인분들의 특성상 시력저하 문제와 더불어 청력도 저하되어 있을 경우 도로위를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방어조치 등 순발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도 순찰중 마주치는 파지수거 리어커에 야광밴드나 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는 해주고 있지만 더 이상 안타까운 후진국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듯 싶다. 운전자 또한 새벽이나 야간시간대 큰 대로는 물론 골목길이

나 길모퉁이를 운전할 때에도 항상 방어운전 자세를 갖아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할수 있도록 심적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어두운 밤거리를 노인분들이 무거운 리어커를 끌고 파지를 운반하고 있을 것이다. 파지를 줌을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노후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지만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분들도 많은 현실이지만 생계를 위해 안전문제까지 도외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폐지를 줌을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보안과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